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5, 독자 반응 비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우리는 텍스트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세션을 마쳤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저는 의사소통의 세 번째 측면, 즉 독자 중심 접근 방식의 다른 측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텍스트 비평적 접근이나 텍스트 중심적 접근의 특징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였던 구조주의가 구조주의를 넘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포스트 구조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고 말했으며, 종종 포스트 구조주의는 텍스트 비평적 접근 방식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해석학과 성경해석.

예를 들어, 그냥 요약하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해석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은 종종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 세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 즉 지식과 의미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다원주의, 해석학적 다원주의이다.

즉, 세계관도, 종교적 신념도, 현실에 대한 해석도 없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대신에 올바른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없는 평준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종종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의미는 종종 권력으로 간주되며, 하나의 올바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종종 간주됩니다. 올바른 의미나 접근 방식, 해석이 없다는
평준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포스트모던 접근 방식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 중 하나는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 같은 것은 없지만 자신의 성향을 가져오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자신의 관점과 관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찾고 싶은지. 셋째, 독서 공동체는 우리의 관점과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이나 포스트 구조적 접근 방식
중에서 저는 이 섹션에서 특히 독자 중심 접근 방식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해석학과 성경해석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해석학은 텍스트 생산과
텍스트 생산에서 저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적, 저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시작으로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통해 논리적,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복구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가 의미의 중심이 되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어려움과 텍스트의 중심 또는 최종

읽기 또는 의미 또는 텍스트의 객관적인 읽기로 나타나는 방법론의 실패로 인해 우리가 독자 중심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의미의 주요 위치는 이제 독자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독자 반응 비평은 이러한 초점 또는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종종 불리며, 우리가 살펴볼 여러 접근 방식, 가능한 여러 접근 방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독자 반응 비평의 주요 초점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위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과 저자 중심 접근 방식의 실패로 인해 이제 의미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 작용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독자 중심 접근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독자의 것입니다. 저자 중심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저자 중심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저자가 부여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자는 텍스트의 생명과 텍스트 생산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저자는 텍스트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자 중심 접근 방식에 따르면, 독자가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텍스트에 생명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텍스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즉, 독자는 의미를 결정하고,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고, 심지어 텍스트에서 의미를 창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자는 본문에서 발견된 내용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반응비평이나 독자반응이 해석에 접근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서는 기껏해야 텍스트가 의미 잠재력만을 갖습니다. 텍스트는 독자가 지금 발견하거나 창조해야 하는 의미의 잠재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 접근, 특히 작가 중심 접근, 더 정확하게는 좀 더 계몽적 접근이나 이성적 접근으로 돌아가면 독자는 종종 객관적인, 거의 수동적인 관찰자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모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세요. 독자는 빈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빈 서판이 되어 텍스트로부터 감각적 인식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독자는 공백, 마른 스펀지와 같으며 순수한 귀납적을 통해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리. 우리는 텍스트를 순수 귀납법으로 간단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텍스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거의 수동적인 관찰자로 비쳐질 뻔했습니다.

독자 반응 접근 방식에서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데 더 적극적이며 텍스트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며,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세 번째 접근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부분이 인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접근

방식은 종종 라벨링되는 것처럼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과 보다 급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접근 방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자 반응 비평이 역사적 독자, 즉 텍스트가 의도된 원래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원래 독자, 열왕기, 열왕기 첫째와 둘째의 원래 독자, 마태복음 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의 원래 독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독자들은 이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자반응비평은 역사적 독자, 즉 본문의 원독자를 포괄할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물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전 5세기의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그러나 그의 독자 반응 비평에서 더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문학 평론가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와 관련된 좀 더 보수적인 독자 반응이라고 분류한 것이었고, 그가 제안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텍스트 기반 독자 반응에 더 가깝다고 분류한 것입니다., 또는 거의 저자가 주도하는 독자 반응 비평 또는 텍스트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즉, 텍스트 자체가 독자에게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즉, 독자가 텍스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저는 저자, 독자가 의미와 의미 발견에 관여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자체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Iser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저자가 남긴 공백이 있으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채워야 하며, 텍스트에서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독자는 이러한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스트 자체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텍스트 자체가 읽기 과정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Iser는
 또한 내재된 독자, 즉 이상적인 독자, 즉 물리적 독자가 텍스트를 읽기 위해
 동일시해야 하는 텍스트에 의해 가정된 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텍스트 안내 독자 반응 비평 또는 저자 안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렇지 않습니다. 독자는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미와 읽기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저자는 독자의 창의적인 해석을
 유도합니다.

특히 본문의 공백을 메우는 측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예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의 탄생 이야기나 소위 크리스마스
 같은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시 읽어 보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백을 메워야 했는지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의 탄생 사건을 그리스-로마 역사 안에 두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황제였던 그 시대에 시작됩니다. 그때.

그리고 구레뇨도 그 기간 동안 시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텍스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고 독자가 채워야 할 공백이 많이 남습니다. 요셉이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거쳐 결국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왔지만 그 다음은, 그들이 거기 있었고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그 간격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요셉이 대상(隊商)을 탔는가를 상상함으로써 그러한 공백을 채웁니다. 그들 스스로 갔나요?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함께 당나귀를 몰고 가는 요셉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마리아가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낳았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나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며 우리는 종종 그 공백을 메웁니다.

아기가 옷에 싸여 구유에 누웠다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구유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전통에 기초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갓을 구유, 헛간 또는 헛간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공백을 메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말해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 하나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이나 호텔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빈자리가 남아 있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인 구유가 있는 헛간이나 마구간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에 번역된 단어는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손님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이 친척집에 가서 손님방에 묵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욱이, 비록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이 내내 그 구유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는 내내 구유에 누워 예수님을 낳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손님 방에 머물렀다가 해산 때가 되었을 때 떠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립된 장소로, 그것은 구유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이 구유, 이 여물통이 들어 있는 마구간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그것은 일종의 옷장이나 집에 기대는 것과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서 전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객실에 있었나요? 그러다가 해산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눕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님방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들은 손님방에 한동안 있다가 진통이 가까워지고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손님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혼잡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유일한 곳,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 요점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야기, 즉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틈새를 창의적으로 채우고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좀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기 위해, 다시 주로 신약성서의 예를 사용하여 신약성서 학자인 로버트 파울러(Robert Fowler)라는 개인은 먹이를 주는 이야기, 즉 4,000명과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는 처음으로 본문을 접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본문을 읽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거나 누가복음 4장과 5,000명을 먹이시는 먹이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성찬의 맥락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울러는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어떤가요? 그리고 그는 성찬례나 주의 만찬이 이야기의 뒷부분, 즉 읽는 과정에서, 즉 마가복음 14장에 도달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파울러에 따르면, 성찬례는 오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읽고 처음 독자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마가복음의 4,000명과 5,000명의 먹이주기를 성찬의 맥락이나 성찬의 환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읽기 과정에서 나중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계시록이 이상적인 독자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자가 자신이 원하는 독자, 실제 문자 그대로의 독자가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특정 독자를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과 지속적인 상호텍스트 관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가정하는 이상적인 독자 또는 유능한 요한계시록 독자는 구약성경 본문과의 연관성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과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구약성서의 환상과 구약성경의 연관성을 깨닫고 포착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자는 때때로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구약성경 본문을 명백히 언급하면서 독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를 점 대 점과 비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어린이용 색칠 공부 책이나 때로는 신문과

십자말풀이 또는 만화를 찾을 수 있는 신문 섹션에서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 이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점과 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진 일련의 점들이 될 것이고 점들을 연결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그림입니다.

좀 더 보수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은 점대점 방식과 비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도 있어 왔습니다. 점은 거기에 있지만 독자로서 당신은 점을 연결해야 하며 숫자는 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더 나은 비유는 보수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의 경우 이것이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일부 점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다른 점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점 대 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연결하고 창조하는 자유.

즉, 당신은 인도를 받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것에는 제약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진을 생산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원하는 종류의 그림을 만들 수는 없지만 텍스트 내에서 발견한 내용은 텍스트 자체의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여전히 텍스트 읽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자의 역할, 독자의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텍스트의 안내나 저자의 안내에 따라 독자가 할 수 있는 작업에 제약을 가합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 방식은 특히 Stanley Fish라는 개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Stanley Fish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서 읽는 모든 내용은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이 수업에 텍스트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진 Stanley Fish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독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이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즉, 독자는 의미를 창조하고, 더 나아가 독자는 텍스트를 창조한다.

즉, Stanley Fish에 따르면 텍스트와 의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 중심 접근 방식과 달리 저자가 만든 텍스트와 의미가 없습니다.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과 달리 존재하는 텍스트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스탠리 피시(Stanley Fish)가 주장하는 급진적인 독자 반응 비평에 따르면, 대신 텍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독자들이 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제목은 <이 수업에 텍스트가 있는가?>이다. 클래스는 의미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의미는 보는 사람이나 독자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텍스트를 만드는 것도 독자입니다. 그들은 텍스트로 무엇을 할지, 해석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지난번에 사용했던 점끼리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보수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을 연결 방법을 안내하는 번호 매기기가 있는 점끼리 비교한다면, 급진적인 독자의 반응에는 점이 이어져 있고 숫자가 전혀 없는 흩어진 점이 있을 것이므로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비유를 비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잉크반점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잉크반점 테스트를 통해 무엇을 보는지 묻습니다. 이 일련의 잉크 얼룩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종종 그것은 보는 사람, 즉 그것을 읽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는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단순히 연결되는 흩어진 점들의 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생성되는 그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점들을 연결하여 그림을 만들기 전까지는 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와 합리주의 시대, 인간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의 해석학의 역사적 뿌리를 여러 회기 전에 살펴보았을 때와 비교하면, 해석은 주체가 대상을 지배하는 주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석자인 주체와 텍스트인 대상 사이에 구분이 있었습니다. 독서반응 비평에서는 주체와 객체, 즉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이러한 구분이 제거되고 해체된다.

대신, 텍스트는 더 많아지고,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텍스트는 거울과 더 비슷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본문에서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내가 본문에 가져온 내 자신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Stanley Fish의 경우 독립체로서의 텍스트, 별도의 개체로서의 텍스트가 그림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접근 방식이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이미 예상되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석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칸트가 해석에 미친 중요한 공헌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독자 반응 비평은 임마누엘 칸트의 통찰을 논리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즉, 칸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뿐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어떤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이미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격자와 범주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즉, 칸트의 경우 개인의 이해와 지식이 사물의 실제 모습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볼 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고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지식, 그것에 대한 나의 인식은 격자와 내 마음의 범주를 통해 걸러집니다. 칸트의 경우, 그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사하고 보편적이며 유사한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독자 반응 비판인 물고기는 이것을 논리적인 극단으로 끌어들이 사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anley Fi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게다가 그는 모든 사람, 모든 독자가 사물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에 따르면 모든 통역사는 텍스트에 가져오는 관점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는 내가 이미 텍스트에 가져온 내용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물고기에 따르면, 우리는 텍스트를 독자로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해석이 텍스트를 진행시킨다고 말할 것이고, 텍스트는 먼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읽는다면 해석이 텍스트를 진행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그에게 권위주의적이다. 내가 텍스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독자로서 나는 의미를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장과 1절부터 6절까지를 해석하는 다양한 천년기 접근 방식은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은 결과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며 어떤 해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천년왕국 구절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지 않으며 저자가 의도한 것과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접근 방식이 제기하는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은 제한이나 제약 및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모두에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있습니까?입니다. Stanley Fish는 하늘에는 한계가 없으며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갈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제약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석을 안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Stanley Fish에 따르면 그 대답은 자신이 속한 해석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을 결정하거나, 텍스트에 가져올 가치와 접근 방식, 신념,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서는 단순히 공동체의 신념, 공동체의 가치, 그들의 관심, 그리고 본문에 대한 접근 방식의 확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올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다시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해석

공동체에 따라 결정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히브리어 6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읽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천년주의자 나 천천년주의자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읽는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본문에서 무엇을 찾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급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매우 간단하게 제시하려면 응답 비평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해석가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예언서와 같은 구약의 본문을 단순히 읽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저자에 따라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확립하려는 노력에는 관심이 없지만 현대 이데올로기와 현대 사고를 적용하고 그것을 성경 본문에 읽는 데 매우 행복합니다.

혹은 탕자의 비유에서 비유로 돌아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아버지, 탕자, 큰 아들의 비유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드, 자아, 초자아에 해당하는 하나의 해석적 접근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목표는 저자나 역사적 배경, 텍스트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단순히 독자가 텍스트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종종 극단적으로 취해질 때,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매우 다르고 때로는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가를 통해 이 접근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둘 다 반응 비평을 읽기 위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하는 동시에, 특히 반응 비평을 읽기 위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접근 방식의 주관적인 성격,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성격, 특히 더욱 급진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은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보는 관점과 확실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기대하시는 독자들에게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본문의 의미를 전적으로 독자의 재산으로 완전히 상대화하는 급진적인 접근 방식은 성경 본문, 즉 본문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며 그들이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독자 반응 비평이 제기한 질문 중 하나는 '나 자신이 발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내 외부의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텍스트는 내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것을 단순히 반영하는 거울인가요, 아니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창에 더 가까운가요? 창문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금이 가고, 아무리 흐려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통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순종을 통해 발견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내 외부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많은 평가에 따르면 독자 반응 비평과 해석에 대한 Fish의 급진적인 접근 방식은 누군가가 텍스트를 읽은 결과로 자신의 마음과 관점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며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텍스트가 단지 내가 가져오는 것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텍스트를 읽은 결과 일부 독자가 변화되고 변형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왜 문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작가는 왜 글을 쓰겠는가? 도대체 텍스트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쨌든 내가 가져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해석을 반영하는 거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 하여 독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 공동체와 해석 접근 방식을 전환하거나 전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까? Fish의 급진적인 독자 반응 비평 역시 누군가가 텍스트를 읽을 때 얻게 되는 새로운 통찰력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 해석 공동체 밖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좋은 읽기, 나쁜 읽기, 좋은 읽기, 더 나은 읽기를 평가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Stanley Fish의 접근 방식, 즉 급진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에 따르면 커뮤니티는 어떻게 자기 비판적입니까? 커뮤니티가 자신과 자신의 관점, 자신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일 여지가 있습니까? 다른 독서 공동체나 텍스트가 독자의 해석 공동체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해석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해석 공동체가 있습니까? 좋은 통찰력과 독서, 해석 관행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일종의 마지막 이별 생각으로 독자 반응 비평가들이 흥미롭게도 이해하고 자신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Stanley Fish가 일관성이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독자

반응 접근법은 자신의 작품에 적용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Stanley Fish의 작품을 작가의 의도를 실제로 확인하는 독자 접근법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대한 독자 반응 접근법의 기여가 있습니까? 특히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해석하는 데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우선, 독자 반응 접근법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순수한 귀납적 해석자가 아니며, 객관적인 해석자는 단순히 우리의 빈 서판에 성경 본문이 기록되고 새겨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전제, 관점 및 약속을 가지고 본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와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질문은 이것이 결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본문을 보는 방식을 왜곡합니까? 그렇다면 내 외부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수 없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 나의 배경 등이 내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지만 그 대신 텍스트는 독자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밖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통찰력에 너무 제약을 받아 우리 자신 밖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텍스트는 단순히 내가 텍스트에 가져온 내용을 반영하고 내 해석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흐려도, 금이 가거나 더러워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바깥의 또 다른 세계와 의미를 보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독자 반응 비평의 두 번째 통찰은 독자가 해석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독자가 단지 옆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독자가 적극적이고 텍스트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독자는 텍스트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따라서 독자의 목표는 어떤 측면에서 텍스트에 내재된 독자, 텍스트 자체가 가정하고 저자가 가정하는 이상적인 독자를 발견하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미 언급한 내용을 본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일어날 때까지 의사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텍스트를 생산하지만 그것을 읽는 독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적절할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통찰은 겸손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독자의 반응 비판은 독자에게 겸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흡수하여 저자가 텍스트에 부여한 의미에 완벽하고 자동으로 부합하는 해석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독자의 반응은 나 자신의 근시안의 위험과 내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가정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위해 겸손하게 해석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다른 관점과 다른 독서를 들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나에게 본문에 대한 도전에 열려 있고, 독자로서, 특히 본문과 본문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해석학적 관점을 극복 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 독서의 맹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텍스트의 관점은 텍스트에 대한 내 자신의 관점과 통찰력 및 가치를 강요하는 내 자신의 경향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기여에 관한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이 역사적 독자의 역할과 내포 독자에 대한 초점, 의미에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찾은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적 독자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독자는 저자가 원래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재된 독자에 초점을 맞추면 독자가 텍스트에서 가정한 것, 즉 저자가 우리가 참여하고 연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상적인 독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점과 제안을 고려할 때, 독자 반응 비평은 성경 본문 해석 과정에 주의 깊게 접근하고 주의 깊게 통제할 때 어떤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의 접근 방식, 독자의 관점, 또는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독자 접근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독자로서 성경 본문에 접근할 때, 우리는 본문에 가져오는 가정과 전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보는 방식을 왜곡하고 영향을 미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본문 해석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반응 중 하나가 단순히 앉아서 본문을 읽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에 접근하고 어떠한 편견이나 전제 없이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단지 텍스트가 말하도록 놔두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의 어려움은 텍스트를 왜곡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 성향, 영향 및 가치가 실제로 읽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독자 접근 방식은 우리가 해석 공동체의 일부로서 가정, 가치, 전제를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며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곡의 가능성,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서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히 제3세계 국가에는 특히 가난과 억압, 권리 박탈의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원저자가 읽었을 방식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성경 원문과 원독자의 상황에 매우 가까운 상황에서 읽는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전제가 반드시 텍스트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텍스트의 원래 상황, 독자의 원래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생산적이고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년간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3세계 국가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를 어떻게, 어디서 읽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었습니다. 21세기 북미 중산층 백인 남성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압의 관점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전위된 위치에서, 빈곤의 상황에서 책을 읽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성경 기자들의 원래 문맥과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상황과 맥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북미 서부 중산층, 사회 경제적으로 중산층 환경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문화와 상황이 내가 책을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독서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그러면 역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배경에 있는 가정, 전제 및 가치가 텍스트에 의해 도전되고 수정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위치입니다. 나는 본문이 도전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겸손하게 본문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힘을 재확인하고 재주장하고 본문을 읽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권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서를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독서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자 반응 비평을 주의 깊게 활용한다면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배경과 영향, 가치와 문화,

심지어 우리가 속한 신학적 전통이나 공동체가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독자의 반응 비평은 우리에게 겸손의 필요성,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일깨워 주지만 동시에 본문이 여전히 우리를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외부의 의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독자 반응 비평, 특히 더 급진적인 형태의 독자 반응 비평은 논리적으로 훨씬 더 밀릴 수 있으며, 특히 급진적인 독자 반응 비평은 논리적으로 해체주의로 알려진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불안정하고, 텍스트도 불안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미를 묶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모두에게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단지 텍스트를 가지고 놓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 방식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포스트구조주의에 속하는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인 해체주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주요 인물을 살펴보고 그것이 해석학과 성경 본문 해석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피해야 할 위험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경 본문에 대한 이념적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언급했지만 특정 위치의 텍스트를 읽고 그 이데올로기, 그것을 생산한 가치 및 관점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성경 텍스트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 성경 본문에 대한 페미니즘적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다시, 해석학이 어디로 가고 있고 해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접근 방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해체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해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도 다룰 것입니다.